Interview 자일스 펜들턴 더 라인 프로젝트 최고운영책임자(COO)

“10년 내 ‘더 라인’ 입주 시작…韓 기업 협업 가능성 열려 있다”

〈The Line·170㎞ 길이 선형 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하나〉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 김우영 기자

일명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심혈을 기울이는 세계 최대 토목 공사로 꼽힌다. 사우디 북서부 홍해 연안 거대한 황야에 초대형 주거·산업용 신도시들을 세우는 프로젝트다. 그 규모만 서울시 면적(약 605㎢)의 약 44배인 2만6500㎢에 달한다. 이 황야에 선형(線形) 도시 ‘더 라인(The Line)’을 비롯해 여러 도시를 구축하는데, 전체 공사비로만 1조달러(약 1278조원)가 투입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이 ‘네옴 특수’를 기대하며 발주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다. 실제로 사우디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네옴시티의 더 라인 프로젝트 운영을 총괄하는 자일스 펜들턴(Giles Pendleton)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은 깊이 있는 전문성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풍부한 경험과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옴시티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뛰어난 스마트 교통 시스템으로부터 영감을 받기도 했다”며 “한국 기업과 협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일스 펜들턴

자일스 펜들턴
더 라인 프로젝트 최고운영책임자(COO)
전 남아공 그린빌딩협회의 의장, 전 ATTACQ 최고개발책임자, 전 옴니야트 개발 감독, 전 DIFC 부사장

네옴시티는 어떤 곳인가.

“사우디 북서부에 위치한 2만6500㎢의 숨막히게 아름다운 지역이다. 이곳은 특별 경제 구역이기도 하다. 글로벌 연구개발(R&D) 허브를 통해 여러 미래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번성하고 경제 구조 역시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네옴시티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더 라인(The Line)’ ‘옥사곤(Oxagon)’ ‘트로제나(Trojena)’ ‘신달라(Sindalah)’다. 더 라인은 길이 170㎞의 선형 도시다. 옥사곤은 뛰어난 거주성을 갖춘 산업 항구다. 트로제나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산악 리조트며, 신달라는 홍해에 있는 한 럭셔리 섬 리조트다.”

네옴시티와 전 세계 다른 도시의 차이점은.

“네옴시티는 빈 캔버스에서 그림을 그리듯,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 세계 다른 도시들은 늘어나는 인구, 멈추지 않는 토지 수요, 도시 팽창 등 지속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도시를 반면교사 삼아 네옴시티의 청사진을 그렸다. 특히 자연 우선 원칙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재녹화(re-greening), 재야생화(re-wilding) 전략을 통해 건축 과정에서 자연 훼손이 매우 적다. 건설 용지의 약 95%는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사우디 초대형 미래 도시 네옴(NE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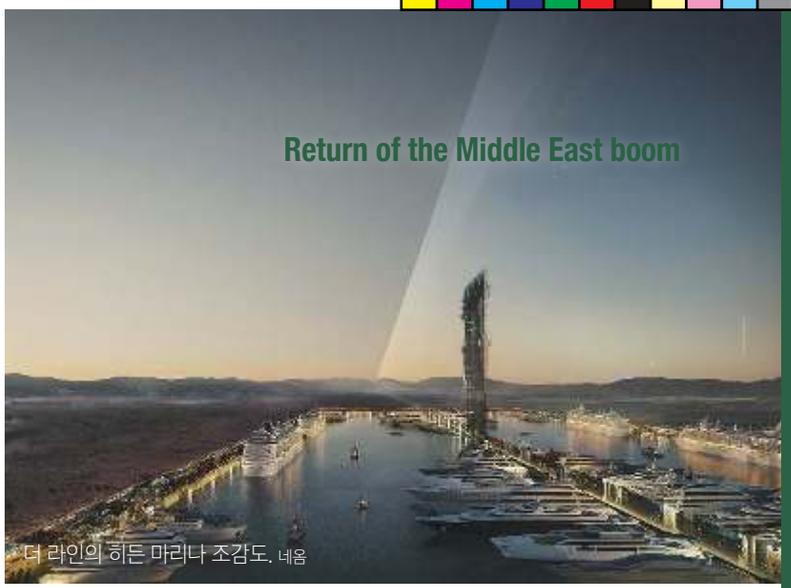


네옴시티를 구상할 때, 영감을 얻은 도시가 있나.

“네옴시티는 80여 개 국가에서 온 최고의 인재들이 만드는 미래의 실험실과 같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과 글로벌적 사고가 네옴시티의 성공 요인이다. 런던, 뉴욕, 코펜하겐, 도쿄는 물론 나와 도시계획팀이 매료된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영감을 얻었다. 특히 서울은 스마트 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다. 이처럼 서울에서 얻은 훌륭한 교훈을 네옴시티에서도 활용하고자 한다.”

16-17_커버-파트2-네옴시티_m.indd 16 2023. 6. 22. 오후 9:39


사막 위에 세워진 선형 도시 더 라인 조감도. 네옴


더 라인의 히든 마리나 조감도. 네옴

네옴시티의 '더 라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으로 주목받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킬 계획인가.

"더 라인은 '문명사회의 혁명'이다. 인간을 가장 우선시하는 동시에 도시 면적을 줄이고, 인구밀도를 최적화하며, 거주성을 높이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도시다.

우리는 더 라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최첨단 현대식 건축 방식을 사용한다. 바로 '모듈식 공법'이다(레고처럼 사전 제작된 내부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공법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더 라인 건설은 2022년 4월에 시작했으며, (운하를 통해 홍해와 연결된 구역인) '히든 마리나(the Hidden Marina)' 지구는 10년 내 첫 주민과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더 라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게 될지 궁금하다.

"더 라인에는 세 가지가 없다. 자동차, 도로, 배기가스 배출이다. 더 라인에서는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 없이도 어디에 거주하든 도보로 5분 이내에 업무 공간, 의료, 리테일, 교육, 자연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탁월한 복합 커뮤니티가 조성될 것이다. 불평등 수준이 높고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필수 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전 세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봐라."

네옴시티 건설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 가능성도 있나.

"물론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기업과 협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네옴시티가 추구하는 바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깊이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네옴시티는 삼성물산·현대건설과 세계 최대 규모의 터널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풍부한 경험과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네옴시티에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라고 본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대한 헌신이 인상적인데, 이를 통해 네옴시티의 성장을 견인해 줄 수 있다고 본다."

+ Plus Point

사막 위 170㎞ 선형 도시 '더 라인'은 어떤 곳?…전시관 가보니

6월 11일(이하 현지시각) 찾은 사우디 리야드의 '더 라인(The Line)' 전시관. 이곳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도시인 더 라인을 미니어처로 구현한 일종의 '모델하우스'다. 전시관에서 확인한 더 라인의 모습은 수천분의 1 크기로 축소했음에도 마치 공상과학(SF) 영화에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 더 라인 전체 크기는 170㎞ 길이에 높이 500m, 폭 200m 규모다. 롯데타워(555m) 높이의 건물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도시 외벽은 거울로 만들고, 내부엔 주거와 상업 공간뿐 아니라 대학, 병원, 박물관,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에는 초고속열차가 지나다녀 도시의 끝과 끝을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더 라인의 여러 구역 중 하나인 '히든 마리나' 지구는 홍해에서 시작된 운하가 건물을 관통해 반대편 선착장(마리나)까지 이어지는 형태다. 그래서 이 구역의 이름이 히든 마리나, 숨겨진 선착장인 것이다. 사우디는 2030년 도시가 완공되면 전 세계에서 온 900만 명이 이곳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라인 내부 모습을 구현한 미니어처. 김우영 기자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회의론을 제기한다. 하지만 작년 10월 착공이 이뤄졌고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한국에선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터널 공사를 수주, 작년 11월 8일 착공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더 라인 공사 프로젝트와 관련해 앞으로 3~4차례 추가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17_커버-파트2-네옴시티_m.indd 17 2023. 6. 22. 오후 9:39